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투자

아난야 바타차리아
인도 방글라나탁 대표

초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풍부한 문화 표현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란 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무형유산 보호라 하면 연구와 목록화 작업, 예술 형식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회성 축제를 개최하거나 도심 또는 근교에 인공 장소를 마련하여 예술가와 수공예 장인이 자신들의 자연 환경에서 유리된 채 시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무형유산 보호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도의 한 지원 사업에서 비롯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무형유산 보호의 일환으로 기술 활성화와 문화 관광을 포함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창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체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도 콜카타에 본부를 둔 사회적 기업 방글라나탁이 수행한 AFL 프로그램은 삶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안 발전 방안의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AFL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 쇠락의 길에 놓여 있던 12개 전통 예술이 다시 활력을 얻었고, 5000여 명의 전통 예술가들이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혜택을 받았다. 비금전 성과로는 아이들의 교육 향상, 건강 증진, 위생 접근성 향상을 꼽을 수 있다.

무형유산 실연자의 역량 강화, 문서화와 전파, 유산 교육, 인식 제고, 민간 차원의 창의사업 육성이 문화유산 보호 노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화가 마을 이야기

나야(Naya)는 인도 동부 도시 콜카타(Kolkata)에서 약 130킬로미터 떨어진 소규모 마을이다. 총 65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화가’(Chitrakar) 마을이란 별칭이 있다. 여기에는 파투아(Patua)라는 민속 화가들로 구성된 독특한 집단이 있고, 이들은 화가이자 작사가이며 가수다. 수세기 동안 이들은 긴 두루마리에 신화를 그려 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예술 형식은 파타치트라(Pattachitra), 즉 벵골의 두루마리 그림으로 불린다. 금세기 초반에 마을에 거주하면서 이 전통을 추구한 파투아는 20명도 채 안 되었다. 노래를 아는 이는 훨씬 적었다. 대부분이 일용 근로자이거나 행상인이었다. 학계 논문과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 예술 형식의 독창성 가치를 인정했지만 파투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오늘날 나아의 상황은 10년 전과 뚜렷이 대조된다. 나야는 활기 넘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400명이 넘는 파투아가 신화에서부터 일대기, 현대의 사건과 사회 쟁점에 관한 공식 성명 등 여러 주제에 관한 그림을 두루마리에 그린다. 매주, 주중에도 인도 국내외 방문객들이 여러 차려 이 마을을 찾는다. 방문객들은 두루마리에 그려진 이야기, 과일과 꽃, 씨앗에서 염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고 노래 감상을 즐긴다. 파투아들은 사회 쟁점과 관련한 그림을 그려 달라거나 그림으로 공항 또는 지하철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만화책 일러스트 작업을 해 달라는 등 다양한 작업 의뢰를 받는다. ‘스승(guru)’인 원로 화가는 마을 정보자료센터에서 정규 훈련 과정을 통해 열성으로 젊은 세대를 지도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파타치트라를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삼을 기회를 얻었다. 그 결과 이들은 이동성에 대한 사회 구속과 조혼의 압박을 극복했고, 자신들의 감동 어린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월 평균 수입도 2005년 10달러에서 2013년 250달러로 증가했다. 파투아들은 현재 전기가 들어오고 욕실도 딸린 벽돌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

파타치트라의 보호는 파투아의 전통 기술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같은 개입 활동은 방글라나탁의 삶을 위한 예술(Art for Lif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방글라나탁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도 전역에서 문화 접근법을 토대로 공평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에 시작된 AFL 프로그램은 인도 동부의 비하르와 서벵골 주에서 5000여 명의

민속 무용가, 가수, 음악가, 연극극단, 화가를 지원했다. AFL의 목표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명확한 수단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발전 대안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나야에서는 원로 화가가 마을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미술과 노래를 가르쳤다. 인도 국내외의 현대 미술가, 디자이너, 뉴미디어 아티스트는 파투아와 작업하면서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개체를 탐구해 나갔다. 파투아는 다양한 색상의 활용을 배우고 비단, 가죽, 유리, 금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함으로써 광범위한 상품을 창출했다. 자연의 색을 이용하는 사라진 전통도 부활했다. 예술가들은 치트라타루(Chitrataru)라는 공동체를 결성해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갔고, 마을에는 정보자료 센터를 설립했다. 인식을 제고하고 나야를 문화관광지로 홍보하고자 지난 3년 간 마을 축제 ‘포트 마야’(POT Maya)를 매해 11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에 개최했다. 나야가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역량 강화는 기술의 전승과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 개발의 이점과 잠재성 위협의 이해 증진, 위생 훈련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인도 정부의 지방 자영업지원프로그램(2005~2008년)의 자금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는 유럽연합(2009~2011년)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 서벵골 주정부의 관광부가 인프라 강화를 위한 10만 달러 투자 계획을 파투아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나야는 주 관광 소책자와 세계관광기구(UNWTO)가 최근 발표한 ‘관광과 무형문화 연구 보고서’(Study Report on Tourism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실린 사례 연구에서 발견된다.

공동체의 문화 자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풍부한 문화 표현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란 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중 모델은 여전히 학계 연구와 기록에 국한되어 있고, 예술 형식과 드물게 예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문화의 인식 제고 일환으로 일회성 축제를 개최하거나 도심 또는 근교에 인위로 환경을 마련하여 예술가와 수공예 장인이 자신들의 자연 환경에서 유리된 채 시연하는 정도다. 공동체 참여 메커니즘은 명목상의 시책이거나 임기응변식이다. 문화는 여전히 연구와 경외의 대상이지 지역 개발의 수단이 아니다. 보통 문화는 정부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보호가 사실상 공동체의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야 사례는 문화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기업을 구축하고 문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과 복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 준다.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 제13조에 나와 있듯 이 사례는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다음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해 AFL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보호 과제

무형유산 실연자의 목록을 구축하여 유지하는 것은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민속 예술가의 지역 분포, 인원수와 기술 수준에 관한 포괄 정보의 부재 상태는 개입 계획을 현실에서 발전시켜 나갈 때 제약으로 작용한다. 홍보 활동 기획과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관 설립 역시 필수다. 목록작성에 공동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전략은 공동체 지도자를 확인하고 처음부터 보호 노력에 대한 이들의 소유권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는 기술 전승을 강화하고 무형유산 종목을 현대에 맞게 응용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종합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훈련 과목은 해당 예술의 원로 전승자가 마련해야 하며, 강제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지역 다문화 간의 교류와 협력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현대 시장과 고객에 다가가기 위한 전통 실연자의 역량 강화에서 중요하다.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진정성 상실의 위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민속 예술 및 현대 예술 실연자들과 연극 감독, 음악가, 작곡가, 뉴미디어 아티스트, 디자이너 간의 협력 워크숍을 활성화하면 이로 인해 전통 무형유산 실연자의 자신감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놓인 고유한 문화 맥락에 관련한 이해력과 한층 발전시키는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 훈련을 통해서만 행위 예술의 경우 무대와 스튜디오 환경에서의 공연이 보이는 미묘한 차이와 같은 새로운 전문 기술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네트워크에서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활발한 참여 역시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바울(Baul)와 파키르(Fakir)는 벵골의 수니파 민속가수를 말한다. 보편화된 사랑과 형제애로 신성함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철학은 미신과 엄격한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종교성 무관용과 폐습에 질식할 듯 숨 막히는 사회가 짓누르는 제재의 굴레를 타파하고자 17세기에 형성됐다. 축제는 이들의 음악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고, 이들은 세계 규모의 이슬람 수피(sufi) 전통음악 세계에서 유명해

졌다. 콜카타에서 개최되는 국제평화음악 축제 '수피 수트라'(Sufi Sutra)에는 지난 3년 간 19개 해외 팀과 9개 국내 팀이 참여했다. 이 축제를 통해 바울과 파키르는 전 세계의 지지자를 만났다. 방랑하는 음유시인은 2005년만 하더라도 공연으로 거의 수입을 거두지 못했지만 현재는 월 100달러 정도 벌어들이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 속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효한 전략은 문화유산에 기반을 둔 창의 분야(creative sector)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과 기업자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 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고용 창출의 기회가 확대된다. 창의 분야는 낮은 자본 투자와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판매, 문화관광 홍보로 얻는 수출-외화소득 측면에서 경제성으로 중요하다. AFL 프로그램은 예술가 집단이 시장에 직접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이들에게 금융 지식과 문화상품 가격 책정 방법 및 언어를 교육시켰다. 예를 들어 나야의 여자들은 영어를 배워 벵골어를 모르는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 밤새도록 공연하는 곡예 가면극에 익숙한 차우 무용가들은 15~40분 길이의 짧은 공연을 제작하는 법을 배웠고, 타고르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토대로 한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공연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차우 무용가들은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까지 원정 가서 공연하고 있다.

인도의 전통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궁핍한 공동체 출신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복장, 악기, 장신구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또 연습하고 여행할 장소의 필요성을 토로, 무형유산 실연자가 많은 마을에 정보자료 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가 오늘날 해당 지역을 무형유산 기반 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예술가 마을을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킨 모델이 도시 인근 지역에 인위로 형성한 문화유산 공원이거나 마을에 비해 본질상 지속 가능성이 더 크다.

구전 전통과 문화 표현의 기록화가 지닌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기록화가 교육, 인식 제고, 역량 함양을 위한 자원이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보다 흔히 단순한 결과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무형유산 연구는 선택된 소수가 연구하고 감탄하는 그런 대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화 보호 정책과 실천을 알리고 영향을 미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현대 기술은 공동체를 서로 연결시키고 심지어 고립된 공동체의 수입 향상을 위한 많은 기회도 제공하지만 유효한 보급(dissemination)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 생산 및 보급 역량의 창출과 강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식 제고와 정보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세계 시장 및 국제 배급망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화 상품과

서비스 증진 및 보급을 위한 현지 시장과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공공 분야의 이해 당사자 간 연계와 네트워크는 지식, 모범 사례, 노력 반향의 공유에서 중요하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최하는 정기 축제는 홍보와 새로운 지지자 창출의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축제는 비단 무대 공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축제는 음악인, 예술 애호가, 예술 비평가, 연구자와 학계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면서 그 결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여행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한다. 서두에 나온 나야 사례에서 기술했듯 '포트(POT) 마야' 같은 마을 축제는 방문객이 전통 문화와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며, 문화 기반 발전으로 얻은 혜택이 좀 더 큰 마을 공동체로 확장되도록 돕는다. 이는 또한 이촌향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문화 기반 발전의 동력

빈곤 퇴치(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DG 1)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역량 강화(MDG 3) 이외에 AFL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는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을 촉진했다는 점이다. 상업화 성공과 새로운 삶의 기회는 젊은 층이 전통을 배우는 동기가 되었다. AFL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 노력은 공동체의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고 정체성을 강화했다. 무형유산 전승자 대부분은 사회의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궁핍한 생활을 한다. 기존의 발전 방식은 전통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인도 민속 가수(Baul)는 문맹일지는 모르지만 수백 곡을 안다. 밀랍을 사용하는 거의 사라진 전통 금속 공예인 도크라(Dhokra) 기법을 사용하는 유목민이자 토착민 예술가는 자연과 자신의 문화 종목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쓸 줄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든 긴 두루마리에 노래와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파투아의 독창성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공동체는 사회 인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수입과 사회 지위를 찾아 자신이 보유한 전통을 포기하기도 한다. 문화유산 활성화 정책은 상실된 이들의 자긍심을 다시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소외된 공동체는 자신들이 예술 노동자에서 예술 기업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점차 목도하게 될 때 발전 과정의 일부라고 느끼게 된다. 무형유산을 생계 수단으로 보호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주동력은 무형유산 기술이 발전을 위한 자신임을 인식하고 여행자들을 사회에서 인정하며, 기술의 전승과 활성화로 이들의 발전에 투자하고 공동체 기반 창조 기업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

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pg=00006, 최종 접속일 2013년 9월

무형유산 보호 과제 태평양 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다카하시 아카쓰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초록

이 글은 태평양 지역의 역사를 개괄하고 태평양예술축제(Festival of Pacific Arts), 공동체 기반 지식재산권, 접근과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등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내 문화 협력 활동을 소개한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및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를 제시한다. 중간 평가에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활동과 여러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중점 다룬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 무형유산과 공동체 회복
-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삶의 질(wellbeing)
- 무형유산 정책과 전략

이 글은 현장 프로젝트와 연구로 얻은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분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태평양 군소도서개발국(SIDS)들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 및 협약 이행 증진에 발판이 될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소개한다.